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

-젠더, 민족, 민중의 교차

이선옥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부교수

목차

- 1 들어가는 말
- 2 80년대 여성해방문학 어떻게 읽을 것인가
- 3 젠더, 민족, 계급의 ‘복합성’-여성해방문학비평
- 4 민족주의와 불온한 여성 비체-『고삐1』
- 5 마무리말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문학을 검토하였다. 민족, 민중이라는 거대서사에 압도되어 여성을 하위위계화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에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도 이 시기의 여성해방문학이 고민하고 수행했던 여성문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여성문학을 고민했던 여성해방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둘째, 당시 여성해방문학론이 논의했던 젠더, 민족, 민중의 복합성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셋째, 민족문학이면서 여성문학으로 손꼽혔던 『고삐 1』을 대상으로 여성민중의 재현에서 여성주체의 복합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였다.

당시 민족주의운동의 대안 주체로 설정된 민중 개념을 중심으로 이들의 논의와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시도는 광주항쟁과 운동의 열광이 끝난 후 남성중심의 단일성 주체로 구성되어가는 민중 개념에 틈을 내고 여성민중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젠더, 민족, 민중의 복합성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어떤 한 범주가 고립적 범주로 특권화되는 것을 견지하는 여성주의 관점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후 교차성 개념으로 발전되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러나 여성해방문학은 여성노동자의 시각을 견지한 문학을 주장하지만 민중의 개념에 여성을 기입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민족·민중문학의 남성중심성 전체를 해체할 수 있는 대안담론으로서의 의미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범주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사유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교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문핵심어: 여성문학,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 민중, 민족주의, 교차성

##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여성문학도 민족·민중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었고, 여성 주체

의 글쓰기도 광장에서 어떤 주체로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가 되었던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을 분석하려 한다. 민족·민중운동의 한 부분으로 제기된 “여성해방문학론은 성과 계급, 민족문제가 서로 어떻게 착종되어 있는가를 이론화”한 문학론이었다. 이 시기는 광주항쟁의 자장 하에서 민중이 새로운 역사의 대안 주체로 떠올랐으며, 문학 역시도 민중 주체의 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성해방문학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데, “기존의 여류문학으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여성해방문학이 처음으로 대두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sup>1</sup>라고 규정하면서 기존의 여류문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여성해방문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민족·민중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문학을 고민하며 젠더, 민족, 민중의 복합성을 탐구했다는 점이다. 시와 소설 모두 민족과 계급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또한 여성현실이 중첩되는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민중성, 전통성이 결합되는 소설과 시가 창작되었으며, 마당극이나 노동수기 등 다양한 민중문학 계열의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농촌 여성, 근로 여성, 매춘 여성, 여교사 임신 퇴직, 버스 안 내양 자살 등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 문제를 다룬 <여성문화 큰잔치 연희마당> (여성평우회, 1984)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1970년대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여성노동자수기도 1980년대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본격적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된다.<sup>2</sup>

그러나 열광의 시간이 지나고 역사 기억의 문제에서는 다시 젠더가 억압되는 서사의 남성적 특권화 문제가 제기된다. 민족·민중문학이 대안적 주체로 삼았던 민중의 개념이 남성중심의 단일성에 대한 과잉 상상력으로 전유되면서 여성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거나 여성적 경험이 하위적 위치로 위계화되기 때문이다.

1 이명호, 김희숙, 김양선, 「여성해방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1991.봄, 48-51쪽.

2 여성노동자 수기는 1976년 『대화』에 연재된 동일방직 노동자 석정남의 『어느 여공의 일기』를 개작해서 출간한 『공장의 불빛』(일월서각, 1984)을 비롯해서 몇 편의 작품이 연이어 출간된다. 대일화학 노조파업으로 해고된 송효순의 수기 『서울로 가는 길』(형성사, 1982)과 원풍모방 사건을 다룬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창작과비평사, 1984) 등이 대표적이다.

‘회상’으로 구성되는 과거 시간의 세계는 서술자를 통해 통일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쉬람케의 분석처럼 ‘회상’은 지난 삶의 파편적인 의미들을 회상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내기 때문이다. 서술 주체는 과거 사건들의 회상을 통해 파편화된 삶의 다양성을 제거하고 나의 기억으로 온전하고 분명하게 의미를 재현해내는 것이다.<sup>3</sup> 이때 어떤 서술자가 작품을 통어하는가, 현실의 재현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배제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여성문학이 지적한 문학의 가부장적 특성의 문제였다. 남성서술자 혹은 남성적 관점의 서술자가 재현의 문제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게 될 때 여성주인공 서사 혹은 여성의 경험을 다룬 서사조차도 여성주의적 성취를 보여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서사의 시민권 없음은 재현의 유무만이 아니라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서사적 흐름을 볼 때면 민족·민중문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작품들이 여성문제를 도구화, 하위위계화했다는 비판에 일정 정도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해방 학론과 작품을 다시보기 하려는 이유는 자칫 시대적 맥락에서 떼어내 지금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가 시민의 성장과 인간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독재와 투쟁했던 시기라면 1980년대의 화두는 노동자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운동의 이념적 상상력으로 재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민족·민중문학계열의 여성해방문학론이 고민하고 제기했던 논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젠더, 민족, 계급의 교차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야만 민족·민중문학과 긴장관계를 맺으면서 창작되었던 여성문학작품의 스펙트럼 역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적 주체로 등장한 민중 개념과 여성문학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해방문학비평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 작품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문학에서 비평담론과 작품은 일대일 대응의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운동의 관점에서 글쓰기가 수행되었던 1980년대의 특수성 하에서 비평과 문학은 상호성을 맺으며 하나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것으로

3 위르겐 쉬람케, 원당희·박병화 옮김, 『현대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8, 203쪽.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적 관점과 실제 작품을 함께 분석하면서 이 시기 민족·민중문학계열의 여성해방문학론의 쟁점과 성취, 한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 작업을 해보고자 한다.

맑시스트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을 표방한 잡지 『여성』에 실린 비평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 관점으로 내세우고 남성 중심의 문학사 검토를 시작으로 여성문학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신진 여성비평가들이 주로 포진한 이 그룹에서 진행된 비평은 잡지 『여성』, 『창작과비평』, 『여성운동과 문학』 등을 통해 발표되는데, 민족·민중문학 계열의 리얼리즘문학비평과 소통하면서 여성문학의 지평을 넓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분석은 민족문학의 범주에서 창작되고 논의되었던 윤정모의 『고삐 1』(풀빛, 1988.)을 대상작품으로 삼았다. 이 작품은 역사의 증언자로서 글쓰기와 광장에 선 여성 주체의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한편 페미니즘 글쓰기가 주류 담론과 교차 혹은 갈등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민족문학의 가부장성에 압도되어 여성의 경험을 하위위계화하고 도구화하는 데 일조한 작품으로 비판할 것인지, 민족문학과 페미니즘의 불협화음을 뚫고 이 작품이 재현해내는 텍스트의 잉여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민족문학과 페미니즘의 교차 혹은 갈등이라는 시대적 변화과정에서 여성 글쓰기 주체는 어떻게 대응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과제가 될 것이다.

## 2 80년대 여성해방문학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80년대 여성문학의 연구는 민족문학론의 자기 동일성적 특성 때문에 성적 특수성이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미흡했다는 김양선의 연구<sup>4</sup> 이후 본격적인 연구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다. 민족주의에 대한 탈식민주의이론이나 섹슈얼리티연구 등의 영향 하에서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한 젠더구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을 형상화한

---

4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학출여성노동자의 등장을 주목한 이해령, 손유경<sup>5</sup> 등의 연구가 이어진다. 이 연구들은 김향숙 등의 작품을 계급, 세대, 교육, 사회의식에 따라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구성의 다층성을 보여주는 여성문학작품으로 주목했다. 기존의 민족·민중문학이 주목했던 여성노동자문학이 아니라 중산층여성문학의 계급적 분화와 민중적 지향의 여성지식인 탄생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문학운동 무크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여성문학비평을 분석한 김은하, 이선옥, 안지영<sup>6</sup> 등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문학적 시민권을 얻고자 했던 이들 비평의 여성주체 복합성 개념과 여성주의 리얼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그 외에 당시 민족·민중문학과 여성문학에 대한 비평담론을 다룬 조연정, 여성노동자수기를 분석한 배하은, 번역연구의 허운 등의 연구, 개별 작가연구로 박완서, 고정희 등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여성문학연구의 지평을 넓혀 왔다.<sup>7</sup>

다양한 연구 경향 중에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쟁점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민족문학과 페미니즘의 갈등에 대한 최근 연구들의 쟁점이다. 이른바 여성문학의 정치성과 미학적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정체성정치를 강조하고 정치적을

5 이해령, 「빛나는 성과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47, 상허학회, 2016; 손유경, 「사후의 리얼리즘」, 『민중문학사연구』5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6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51, 상허학회, 2017;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또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63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7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 『상허학보』45, 상허학회, 2015;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우리말글』71, 우리말글학회, 2016;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박사논문, 2017; 그 외 안미영, 「1980년대 전반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의의와 한계」, 『비평문학』58, 한국비평문학회, 2015; 이소희, 「일반논문: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김정은, 「‘광장에 선 여성’과 말할 권리: 1980년대 고정희의 글쓰기에 나타난 젠더와 정치」, 『여성문학연구』4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허운,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등의 논문에서도 80년대 여성문학의 운동성, 지식구성의 배경, 민중문학과 관련성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바름이 미학적 기준이라고 강조하는 최근 여성비평은 거대담론이 개인의 욕망과 섹슈얼리티, 소수자의 차이의 정치학을 억압했다는 관점이 주를 이룬다. 지금의 시점에서 1980년대 민족문학을 다시보기 해보면 민족문학과 여성문학의 불화 혹은 위계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 민중 주체를 서사를 통해 어떻게 구성해나갔는가는 질문에서 남성주체의 특권적 지위가 구성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제기된 탈식민주의페미니즘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질문도 민족주의의 남성중심성이었다. 광장의 열광 이후 그 경험이 서사화되는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특권적 주체가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우거나 혹은 열등화하는 위계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민족주의 서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여성주의와 민족주의는 근대성의 모순이 낳은 산물이다. 근대성의 프로젝트인 여성운동은 형제애로 충만한 공동체를 상상하는 민족주의와 상충한다. 민족주의는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관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제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재구성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국가를 단일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성과 인종을 차별하는 데 이용해 온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개념이기도 하다.<sup>8</sup>

이런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용된 탈식민주의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보다는 제국/식민의 남성주의적 동질성에 집중하면서 민족적, 계급적 차이를 지우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호미 바바의 제국주의 모방서사(mimicry)에 대한 이론이 수용되면서 최정무 등의 이론가들이 보여주었던 탈식민주의페미니즘<sup>9</sup>은 식민지민족해방문학이 기실은 제국주의 모방서사이며, 훼손된 남성성의 회복을 위해 여성을 혐오하고 계몽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계몽자의 위치를 획득하는 남성

8 일레인 김·최정무,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21쪽.

9 일레인 김, 최정무 등이 보여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호미 바바(Homi K. Bhabha) 등의 탈식민주의 이론 중 민족국가는 불가능한 통일성에 대한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주장을 참고하고 있다.(Edited by, *Nation and Narration*, Routledge, 1990)

중심적 서사임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날개」가 보여주는 여성혐오 역시도 그러한 작품의 예로 언급되었다. 식민지 민족주의도 제국주의의 민족주의도 가부장적 남성동맹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닮아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민족주의가 성별화되고(gendered), 성애화된(sexualized) 관계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 민족주의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타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주의페미니즘은 식민지의 저항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지와 제국주의 민족 간 갈등과 계급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는 소홀했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식민지 남성주체의 계몽주체 흉내내기조차 균열적이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환영이었음을 분석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다.

호미 바바는 식민서사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모방서사는 제국서사를 흉내내지만 피지배자의 흉내내기는 지배자와 똑같아질 수 없어서 패러디나 조롱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권위주의 주체에 틈새를 내고 지배를 교란시킨다고 말한다.<sup>10</sup> 번역이나 제국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는 그의 문화주의적 주장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식민지 남성주체의 권위주의 흉내내기의 실패와 식민지 남성성 구성의 곤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였다. 특히 식민서사의 경우 특권적 남성성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지배가 오히려 강화되는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87년체제의 젠더무감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젠더, 민족, 계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손희정의 설명에 의하면 페미니즘 리부트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 판타지의 실패에서 출발했으며, 페미니즘 리부트의 중요한 의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공적 영역의 재편에 중심을 둔다. 이들은 포스트페미니즘의 자장 안에서 등장한 소비주체로서의 여성, 자유주의적 주체, 온라인 주체의 특징을 지니면서 87년체제의 젠더무감성을 재수정하려는 시도<sup>11</sup>를 하

10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문화』4권1호, 계명대여성학연구소, 2011, 174-175쪽.

11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7~50쪽.



고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 리부트의 흐름은 페미니즘문학비평에서도 민족·민중 문학의 젠더무감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sup>12</sup> 여성주의비평의 흐름도 87년체제의 젠더무감성을 비판하고 민족문학이 민족, 분단, 계급 등의 거대서사에 압도되어 여성의 경험을 도구화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은 탈식민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포스트페미니즘의 실패를 인식하고, 신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계급적 억압에 대한 자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비평을 살펴보면 젠더정치성이 다시 특권화되는 것은 아닌지, 탈식민주의페미니즘이 드러냈던 문제점처럼 남성주의적 동맹만을 강조하면서 민족간 차이나 계급적 차이를 간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체성정치에서 발원하지 않은 진보와 연대의 정치란 성립할 수 없으며, 다원적 성별 및 섹슈얼리티 체계와 무관한 ‘정치적 올바름’이나 ‘미학적인 것’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sup>13</sup>는 오혜진의 주장은 민족문학에 대한 최근 여성문학비평의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민족문학사의 대표적인 장편서사 작품을 비평하면서 남성의 특권적 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정치적 올바름과 미학성 논의를 하면서 정체성정치에서 발원하지 않은 진보와 연대의 정치란 성립할 수 없다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민족문학이 지니는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수자의 정체성정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이러한 선명성은 여성주의적 비평을 수행할 때 정체성정치가 젠더를 특권화할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다양한 연구의 흐름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정체성정치의 선명성이 다시 젠더만을 강조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이 젠더만을 특권화된 요소로 다루는 순간 국가주의에 흡수되어 갔던 역사적 사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소수자 정체성 정치도 특권화되는 순간 더

12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민음사, 2018)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문학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 책의 필자들이 표명한 관점도 성정치를 인식의 기준으로 삼아 “87년 체제 이후 이미 달성되었다고 믿어졌던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장)의 민주주의”(『서문을 대신하여』, 8쪽)를 다시 심문한다는 것이다.

13 오혜진, 「‘이야기꾼’의 젠더와 ‘페미니즘 리부트’」,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63쪽.

이상 소수자성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이나 민족의 차별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공적 역할 인정, 국가의 양육제도 등에 동조하면서 제국주의의 전쟁동원 논리에 동화되어 갔던 여성작가의 친일문학이 그런 사례였다. 최정희의 「야국초」(국민문학, 1942.11)를 예로 들어 보면 이 소설은 혼외자를 둔 여주인공이 모든 아이들을 국가의 신민으로 인정하고 국가제도로 양육한다는 일제의 황국신민정책에 동의하면서 조선의 가부장을 과감히 버리는 이야기이다. 더 이상 혼외자와 미혼모가 아니라 황국의 신민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국가주의페미니즘에 동원되어 갔던 내적 논리를 볼 수 있다.<sup>14</sup> 젠더 역시도 고립적으로 사유할 때 특권화되고 얼마든지 권력화될 수 있다는 점<sup>15</sup>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 페미니즘문학비평은 특권적 권력의 해체를 지향하는 대안담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새로운 지점에 와 있다. 그러나 민족문학이 여성문학을 하위위계화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한 선명성보다 더 필요한 일은 각각의 작품에서 여성이 어떻게 남성과의 차이의 기호로 구성되고 그러한 지배이념의 구성에 여성적 글쓰기가 어떻게 균열적으로 개입해나가는가를 세심하게 읽어내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민족문학이 저항담론의 중심 주체로 삼았던 민중의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이 어떻게 단일한 민중 개념에 개입하고 균열적인 민중 주체를 그려나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젠더, 민족, 계급의 ‘복합성’-여성해방문학비평

1980년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민족·민중운동의 핵심 주체로 등장한 ‘민중’이라는 개념이다. 이남희의 연구에 의하면 “민중은 통상 엘리트 지도층 더 나아가 교육받은 사람 또는 교양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지칭했는데, 특히 기존

14 이선옥,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동원의 논리-여성의 친일작품과 논설」,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257-258쪽.

15 또한 자칫 여성 범주의 특권화는 최근의 다양해진 소수자 성정치에 둔감한 이성애 중심주의로 흐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성애중심주의의 위협성은 젠더 교차성에 대한 이후의 작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의 사회·정치 체제 속에서 억눌린 사람이지만 억압에 저항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sup>16</sup>고 분석한다. 당시 운동권에서 민중을 사유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을 분석한 이 책에서는 민중이 민족을 살리는 변혁의 주체로 상정되고 사유되면서 민중사관을 기반으로 반미, 반독재, 반독점의 역사 주체로서의 민중 개념이 대항담론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담론의 주역으로 선택된 민중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가변적이었다. 하위 주체의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는 과정<sup>17</sup>에서 형성된 흔들리는 개념이어서 운동권의 도덕적 순결성을 상징하는 권위적 개념으로 변질되는 문제 또한 안고 있었던 것이다. 민중 개념을 둘러싼 담론적 경쟁, 개념의 전유와 내포와 배제<sup>18</sup> 등을 살펴보면 민중이라는 개념에 여성을 기입하는 1980년대 여성문학의 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전문적인 여성문학연구자 단체가 설립되고 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하는데, 1984년 12월 설립된 <또 하나의 문화>가 잡지 『또 하나의 문화』를 창간(1985.2)한다. <여성사연구회>는 잡지 『여성』(창작과비평사, 1985.11)을 3호까지 발간한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에서 발간한 『여성운동과 문학』1, 2(1호는 실천문학사, 1988, 2호는 풀빛, 1990)도 이 시기에 발간된 여성문학 무크지였다.<sup>19</sup>

여성해방문학비평으로 명명된 비평의 흐름은 잡지 『여성』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진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새로운 페미니즘비평을 전개해 나간다.<sup>20</sup> 이 그룹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글로

16 이남희, 유리·이경희 옮김,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28-29쪽.

17 위의 책, 34쪽.

18 푸코는 「정치학과 담론」라는 논문에서 대상(objects), 작동(operations), 개념(concepts), 이론적 옵션(theoretical options)을 중심 요소로 분석하여 줄임과 내포, 일반화, 대상사이의 위치전환, 대립항 사이의 우위가 바뀌는 변화, 종속소의 변화, 배제와 포함 등을 추적해 보면 담론 구성이 바뀌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Graham Burchell ect. edit,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The Univ. of Chicaco Press, 1991, p.56 참조)

19 이선옥, 앞의 논문(각주6), 167-168쪽.

20 『여성』(창간호 1985-3호 1989)은 아현연구실(1980)과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84)가 여

는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여성』 1호, 창작과비평사, 1985.), 김영혜, 「여성문제의 소설적 형상화」(『창작과비평』, 1989. 여름.),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창작과비평』, 1991. 봄.)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민족·민중문학과 여성문학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젠더, 민족, 계급의 관계에 대한 여성문학계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여성’그룹의 고민과 이론적 수용을 보여주는 『여성해방문학의 논리』(한국여성연구회문학분과편역, 창작과비평사, 1990)가 편역 출간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을 통해 이들의 이론적 기반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김영혜의 「편자서문」은 이들의 이론적 사유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다.

여성문제를 남/녀 대립의 고립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역사적·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한다고 할 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문제 등이 여성문제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또 여성문제를 이와 같이 파악하면서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이를 문학작품의 분석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또한 기왕의 진보적 문학논의와 ‘여성해방론’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등등.(4쪽)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문제 등이 여성문제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또한 리얼리즘 문학으로서의 여성문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의 고민을 풀기 위해 이 책을 편역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사회주의적, 유물론적 여성해방비평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물론적 여성해방비평을 향하여」에 주목하여 이론을 소개하고 편역자들의 비판적 관점도 제시하고 있다. “여성 사이의 인종, 계급, 그리고

---

성사연구회로 합쳐진 후 발간한 잡지이다.(정민우, 「지식장의 구조변동과 대학원생의 계보학, 1980-2012」, 『문화와사회』15, 2013, 19쪽 참조.) 1989년 한국여성연구회로 통합하여 『여성과 사회』(창간호 1990-16호 2005)를 발간하였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여성연구회로 개칭하고 학술지 『페미니즘연구』(창간호, 2001)를 발간하고 있다.

역사적 조건의 실제적 차이들을 간과한 채 ‘여성’이라는 또 하나의 보편적인 범주”(7쪽)로 보는 급진주의나 프랑스페미니즘의 본질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이들의 관점에 동의하지만 성, 계급, 인종의 관계를 절충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세 범주의 근본적인 규정성을 민중여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에 기반을 두고 남성중심 문학사를 비평하기 시작한 이들은 이른바 MF(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와 SF(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논쟁이라 불리는 여성문학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한 논쟁을 이끌기도 했다. ‘여성’그룹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의 핵심적 지배구조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는 문학을 여성문학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여성주의적 리얼리즘에 대한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1호에 실린 정은희 외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은 문학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의 왜곡상을 분석한 본격적 여성주의비평의 신호탄이었다. 최인훈의 『광장』, 이문열의 『영웅시대』, 조해일 『겨울여자』, 김승옥의 「아행」에서 여성의 왜곡된 주체성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대상화가 이들 작품의 관념적 세계관의 한계와 가부장성을 반영하는 것임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그릇된 민중의식과 윤락여성을 그리는 작품을 분석한 장이다. 천승세 「황구의 비명」, 조해일 「아메리카」, 황석영 「물개울의 새」를 분석하면서 민족문학, 민중문학의 흐름에서 빈민여성, 노동여성의 현실보다 유독 윤락여성에 주목하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외세에 의한 민족의 피해를 그려내기 위해 윤락여성에 주목하지만 실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의 성매매, 성폭력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재한 상태임을 비판한다. 결국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안식처로 바라보는(51쪽)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내면화한 채 여성을 민족의 피해자로만 호명하기 위해 선택했을 때 여성이 도구화되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유독 외세에 의한 성폭력, 성수탈을 강조했던 가부장적 민족주의서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허위의식이 사회 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한 그 사회구성원인 작가가 생산한 문학작품 역시 일정 정도 허위의

식에 사로잡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작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이다. (...)남성중심적 가치기준이 곧바로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등치되어 왔고 대부분의 비평가 또한 남성이었다는 역사적 상황에서는 여성문제에 관한 한 비평가 역시 작가와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적 사고에 함몰되어 비판적 인식을 지니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느끼는 구체적 억압상황이나, 그 억압상황이 이 사회 전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직접적 연관을 가진다는 점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7쪽)

위 예문에서는 민족·민중문학계열의 여성문학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닐 것인가를 보여준다. 여성주의비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관점은 생물학적 기원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성중심적 가치기준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여성작가 역시도 남성이배사회에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무의식적 노력으로 남성중심적 사고를 내면화하여 작품 세계가 이중적인 모습(7쪽)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얼리즘의 ‘관점이론(standpoint theory)’에 입각한 이 글의 필자들은 민족·민중문학의 남성작가 대표작들을 분석하면서 여성관의 한계가 세계관의 한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역사유물론적 입장에서 출발한 관점이론은 “페미니스트 입장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의 특별한 부분 내에 위치한다”는 주장<sup>21</sup>으로 요약된다.

---

21 역사유물론적 입장에서 출발했던 1980년대 페미니스트 관점이론(standpoint theory)은 낸시 하트삭이 발표한 논문 「페미니스트 입장: 페미니스트 역사적 유물론을 위한 토대를 발전시키기」(“The Feminist Standpoint: Developing the Ground for a Specifically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Discovering Reality: Feminist Perspectives on Epistemology, Metaphysics, Method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Eds. Sandra Harding and Merrill Hintikka, Dordrecht:Reidell, 1983)이 대표적이다. 샌드라 하딩이 과학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여성의 관점이 제외되어 왔다는 지식구성의 남성중심성을 제기한 이론도 관점이론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문학에서도 페미니스트 관점이론은 기존의 문학사에서 여성의 관점이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인식론적 기초가 되었다.(이소희, 「탈식민 페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을 내세운 여성그룹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별개의 물질 토대를 갖는 이중체계가 아니라 자본의 이해관철 속에 통일되어 있다고 파악한다.”<sup>22</sup> 따라서 중산층 여성의 시각에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작품보다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문학을 보자는 것이다. 거기에 분단문제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하에서 민족문제, 계급문제, 여성문제가 집약하는 여성노동자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문제는 위와 같은 계급모순 외에도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의 특수성 즉 독점자본과 제국주의가 함께 작용하는 신식민적인 모순에서 나타나는 민족문제, 분단상황이 가져다주는 분단문제를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고 이러한 이중삼중의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떠안고 있는 여성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 80년대 여성해방문학이 그 출발의 단초로 제기한 것이 바로 우리사회 모순의 최대집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입각해서 문학을 보자는 것이었다.<sup>23</sup>

여성노동자계급의 관점이란 변혁운동의 주체로 호명된 노동자계급, 즉 민중의 개념에 여성을 기입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차별을 한 몸에 짊어지고 있는 여성노동자계급의 시각에 확고히 기반한 실천적 여성해방문학론”<sup>24</sup>을 지향했던 이들의 관점은 현실의 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결혼 전에 거쳐가는 과도기적 노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던 운동의 풍토에서 여성노동의 관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민중을 교차적으로 사유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깊다. 그러나 위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성운동을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사유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민족·민중운동의 남성

---

미니즘비평과 페미니스트 입장이론의 교차 지점에 관한 연구-글로벌 시대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 『영어영문학』제48권3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2, 692-693쪽.)

22 김영혜,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1991. 봄, 49-50쪽.

23 위의 글, 50쪽.

24 이명호 외, 앞의 글, 55쪽.



중심성 전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대안담론으로서의 의미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론적 여성해방비평이 성, 민족, 계급 범주의 절충론이라 비판했지만 이들 역시도 기존의 남성중심적 민중 개념에 여성을 기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 한 부분으로 여성을 기입했을 때의 문제점은 하위위계화되는 서사의 가부장성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사 내면에서 작동하는 남성적 특권화의 방식을 문제 삼고 교차성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적 틀에 접근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작품분석에서도 박노해의 「이불을 꿰매면서」가 계급과 젠더문제를 잘 다룬 작품으로 꼽기도 한다.<sup>25</sup> 시적 자아의 계몽자로서의 위치성을 분석해 보면 내면화된 남성중심성을 읽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개념에 여성을 기입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점이 젠더가 고립된 변수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젠더, 민족, 계급의 교차성에 대한 본격적인 사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평에 나타난 민중 개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성과에서도 민족이나 민중이라는 거대담론의 원심력에 흡수되지 않는 균열적 요소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4 민족주의와 불온한 여성 비체-『고삐1』

윤정모의 『고삐1』(폴빛, 1988)은 정신대부터 양색시까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과 수탈을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풀어내는 민족·민중문학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민족주의가 지배이념이 되면서 가부장제 하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현실적 몸의 경험과 균열을 일으키는 작품이어서 특히 문제적이다. 자전적 소설로도 주목을 받았던 이 작품의 주인공 정인과 여동생 해인은 미군부대 주변에서 준매춘 상태로 살아온 자매들이다. 정인은 사회운동가인 남편 한상우를 만나 여성의 성적 수탈이 일제에서 미군으로 이어진 민족수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

---

<sup>25</sup> 위의 글, 61쪽.



편의 사회운동을 이해하게 된다. 반면 미군과 결혼한 동생 해인이 제국주의의 관점에 서서 정인을 비난하자 그녀는 자매의 연을 끊고 민가협 어머니들과 사회운동의 삶으로 나아간다. “남자는 어찌하여 배설하고 돈을 주는 역할, 여성은 몸을 파는 역할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춘과 윤락은 외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표지, 작가의 말)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정인은 계몽자 상우에 의해 매개된다. 거의 직접적인 계몽의 목소리가 한상우의 법정 진술이나 계몽적 설명을 통해 제시되고 있어서 당시에도 혈연/고베/매춘이 모두 외세의 타점으로 둘러지면서 여성문제가 더 큰 문제 속에서 희석된다는 평가를 받았다.<sup>26</sup>

민족주의 담론 하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민족의 훼손된 가치와 동일시되고 여성은 집단 정체성의 상징적 저장소가 되곤 한다. 이 작품에서도 여성 특히 여성의 신체는 훼손된 국토와 동일시된다. 그리하여 여성의 순결은 남성에 의해 지켜야 할 민족의 정신이며, 국토가 된다.

우리 역시 양키를 몰아내지 않는 한 이 쓰라린 인간모독은 끝날 날이 없고, 매음부가 있는 한 여성운동가나 우리의 주부, 어머니들 역시 진정하게 해방될 수 없으며, 우리 민족들 모두가 더불어 해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남성들은 그 누구도 여성의 순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1, 105면)

정인의 남편 한상우의 법정진술이지만 그대로 정인의 의식개혁으로 매개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표층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하층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모두 수렴되는 억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거대서사의 프레임을 거두고 보면 이 작품이 새롭게 읽히고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독서실감의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

<sup>26</sup> 김영혜, 「여성문제의 소설적 형상화」, 앞의 논문, 63쪽. 노지승의 연구에서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혐오스런 나쁜 모성과 민족 공동체에 복무하는 훌륭한 모성이라는 여성재현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지승, 「여성작가는 어떻게 ‘탈여류’를 했는가:윤정모 소설에서의 상상된 부계와 여성혐오」, 『여성문학연구』5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5쪽.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중산층여성들의 윤리감과 다른 하층 윤락여성의 솔직함과 생생함을 보여준다. 돈에 대한 욕망과 쾌락원칙이 지배하는 삶의 전쟁터에서 이악스럽게 살아온 그녀들이 실감나게 묘사되는 것이다. 첫 대면에서 한상우의 아버지가 야한 옷차림과 속눈썹을 나무라자 그냥 뽀하고 서울로 와 버리는 정인은 제도와 규율을 내면화한 중산층적 윤리감과 전혀 다른 인물이다. 정인은 엄마의 온천장 ‘조바’(기생들의 심부름꾼) 생활이 지긋지긋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지만 결국 비어홀과 살롱 등을 전전하는 술집 여급생활을 하며 동생 해인을 돌보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관 건물 늑은이에게 처녀성을 팔아버린 후 또다시 일본인 교포에게 몸을 팔게 된다. 요힘빈이라는 약물에 취해 강제로 몸을 팔게 되는 과정은 강간이지만 강간이라 주장할 수도 없는 신세다. 가짜 대학생노릇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내는 그녀지만 강간과도 같은 매춘의 기억은 끔찍하게 기록된다. 강간의 장면묘사도 자세하게 그려진다. 호텔방에서 나온 그녀는 “만 원짜리 저 사치품보다 싼 몸뚱이”(1, 138쪽)라며 자기 환멸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복한다는 기분으로 젊은 대학생과 잠자리를 하게 된다.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 한상우이다. 군입대를 한 상우와 잠시 잊고 지내는 사이 매춘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전략의 구조 자체이다. 하숙방에 얹혀살기 위해 몸을 팔기도 하고, 이기적인 대학생에게 속아 함께 살다가 버림받기도 한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그녀는 탄광촌 스트립퍼로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버려진 동생 해인 역시 그녀와 같은 매춘여성의 길을 걷게 된다. 그녀들에게 몸은 유일한 자본이기도 하고 자기정체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돈과 몸이 매매되는 현장에서 몸의 교환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장도 거짓도 죄책감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가 실감나게 재현되고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재현 또한 섹슈얼리티의 끌어넘침과 성의 매매가 요술로 선망되는 세대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정인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성장했으며, 양공주의 화려함에 대한 선망 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세대이다.

아이는 끊임없이 끌어넘치는 전쟁 이야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 전쟁은 무섭거나 공포가 아닌 쾌감 같은 전율이나 감격, 흥분이었고, 그 속에는 항상 미군과 달콤한 초콜릿 향내가 숨어 있었다.(…)과수원 뒷산에서는

미군들 여럿이 마을 처녀 원자를 눕혀놓고 번갈아 가며 배를 탔고, 미군들이 떠나자 호미로 땅을 탕탕 치며 울던 원자가 마을에서 사라진 그 다음해엔 양공주가 되었는지 멋진 뺨뚱구두를 신고 자기집에 다니러 왔었다. 그녀는 멧쟁이로 변한 원자를 보고 미군들이 처녀의 배를 타는 것은 그 처녀를 멧쟁이로 만들어주기 위한 고마운 요술이라고 믿어버렸다.(1, 31-32쪽)

아이들은 탄피를 주우러 다니면서 전쟁놀이를 일삼았고 “또 가끔은 무나 가지를 잡지 위에 갖다 대고는 미군대장 자지라고 우쭐대기도 했다.”(1, 32쪽) 게다가 끊임없이 바뀌는 엄마의 남자들. 엄마와 해인아버지의 정사장면을 목격하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다. 심부름을 다녀오다 정사장면을 목격한 어린 정인은 엄마와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이 작품은 여성의 몸에 대한 묘사에 너무나 솔직하다. 동생 해인이 굶어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지만 걸귀가 들린 것처럼 지렁이며, 흙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먹어치우는 대목의 묘사도 섬뜩하다. 똥을 누면 미주알(항문에 연결된 창자의 끝부분)이 빠지는 해인의 빠져나온 곱이 흐르는 창자를 정인이 넣어주는 장면까지 하층민의 삶을 묘사하는 데 거침이 없다.

이 작품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리얼한 묘사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긍정정보다는 혐오와 부정으로 재구성된다. 여성의 몸은 오염된 몸, 피흘리는 찢어진 비천한 몸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작품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비체(object)로 재구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27</sup> ‘비체’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폐기되는 비천한 몸, 더럽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인간 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몸이다. 즉 찢어진 몸, 피 흘리는 몸, 체액, 피, 침 등이 몸의 경계를 뚫고 몸의 불안정성, 취약성, 동물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윤정모의 작품은 이러한 비천한 여성의 몸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족

27 김정자·정미숙, 「몸과 기억의 현상화-윤정모의 『고삐』읽기」, 『여성학연구』10권 1호, 부산대여성연구소, 2000, 152쪽.

28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116-117쪽.

주의담론이 여성의 경험적 신체를 비체화하고 순결한 신체, 모성적 어머니의 신체로 신성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그대로 재현되고 균열된 텍스트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작품의 표층서사가 민족주의담론으로 여성적 경험을 환원하고 젠더를 위계화하는 텍스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균열시키는 여성의 경험과 서사가 이 작품의 표층서사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비체가 되는 여성의 몸은 불온한 상태로 남아 있고 완전히 처벌되지 않는다. 여성 섹슈얼리티가 비체가 되어 처벌되는 전형적인 방식은 1970년대 성애화된 여성영화들에서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몸은 사라지지만 그녀들의 순수한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서사적 관습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가부장 사회에서 이탈된 불량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몸은 아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부장적 여성성으로 재구성된다. 『고삐1』은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를 혐오하고 비체화하지만 완전히 처벌하고 정신만이 남는 방식의 가부장적 여성성의 구성과는 좀 다르다. 주인공은 여전히 싸움꾼이고 자신의 몸의 경험에 대한 해석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그 때문에 『고삐2』(폴빛, 1993)를 시도하지만 여전히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해석은 미완인 채로 분열된 서사로 남게 된다. 하층여성 섹슈얼리티의 경험을 드러내는 드문 작품임에도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담론적 자장에 압도되었을 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의도적 실천과 달리 무의식적 실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수는 없을까. 지배이념에 의해 통여되지 않는 하층여성의 몸의 경험이 잉여로 남아 독자들과 소통되는 독서경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낼 수는 없을까.<sup>29</sup> 그동안 재현의 시민권이 없던 여성신체의 경험이 솔직하게 재현될 때 가부장이념으로 전유되지 않는 잉여들이 텍스트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

---

29 딸인 윤솔지의 회고 기사에 의하면 당시 책의 인기와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 엄마랑 가끔 출판사에 갈 때면 폴빛출판사 나병식 사장님이 보여주던 장부에 기록된 일일 판매량에 놀랐던 기억을 회고한다. 책은 하루에도 몇 천부에서 몇 만부씩 불티나게 팔려났고, 전화 코드를 빼놓아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집 앞에 독자들이 진을 치고 있기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데모가 먼저였고, 양심수 후원회, 민가협 운동을 후원하는 데 인세를 후원하곤 했다고 한다.(윤솔지, 「딸이 묻고 엄마가 답하다⑦-대박난 책, 소설가 윤정모의 뜻밖의 선택」, 『오마이뉴스』, 2019.06.26.)

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민중 개념에 여성을 기입하려는 이 시기의 노력은 불완전하지만 가부장이념이 추구하는 신화화된 모성성이 허약한 이데올로기라는 점 또한 드러내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안존한 아내가 되고 싶어 하는 가부장적 욕망과 민중의식을 각성하고 민가협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민중성의 획득, 그리고 몸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하층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주인공 정인을 균열적인 텍스트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균열적 여성성의 재구성과정에서 비체로 구성된 여성 섹슈얼리티의 경험이 서사의 무의식으로 남아 텍스트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 5 마무리말

1980년대는 여성이 공적 영역의 주체로 성장하고 이를 글쓰기의 재현으로 이끌어낸 시기로 여성문학도 민족·민중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창작되었다. 그러나 여성=민족의 피해자라는 거대담론의 프레임이 오히려 여성을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추상적 존재로 도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여성의 가부장적 경험은 억압되고 입 없는 여성은 하위의 젠더위계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광장에서의 여성의 목소리가 발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성노동자, 운동권 여학생, 중산층여성 등 다양한 여성주체의 문학적 재현이 이루어졌고, 노동수기, 마당굿 등 노동현장과 연결된 민중여성들의 발화를 문학장으로 이끌어내는 다양한 장르의 확산이 이루어진 점은 이 시기의 성과로 보인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이 제기했던 젠더, 민족, 계급의 복합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재현하고자 했던 여성노동자의 관점, 여성민중의 재현은 민족·민중문학의 남성적 위계화를 완전히 해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중의 개념에 여성을 기입하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해방비평이 고민했던 성, 민족, 계급의 복합성 개념은 교차성에 대한 사유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어떤 한 범주가 특권화되는 순간 다시 위계화된 서사를 생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품으로 살펴본 『고삐1』의 경우 민족 개념이 지배이념으로 표층서사를 통어하면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폭력에 노

출되는 문제들을 비가시적으로 만들고 있다. 정신대에서 양공주까지 윤락여성으로 살아온 여성을 외세에 의한 피해자, 짓밟힌 국토로 그려낼 때 실제 그들이 왜 오랜 시간 자기 경험을 말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가려진다. 민족의 남성이 지켜야 할 대상이 되면서 여성은 하위위계화되고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은 감추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다시읽기 하는 이유는 여성의 몸이 드러내는 불온한 힘들이 표층서사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여성과는 전혀 다른 육체를 교환가치로 삼아 살아온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재현되고 불온한 잉여로 남아 있다는 점은 민중여성의 재현에서 볼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젠더, 민족, 계급의 요소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주요한 기점이 된다. 1920, 30년대 계급주의 여성해방론이 논의되었던 시점에 여성주의는 아직 충분한 이론적 기반을 갖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여성작가들의 작품도 계급주의나 민족주의에 압도되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젠더가 민족주의 이념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시점은 1980년대부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문학에 대한 이해는 젠더의 교차성,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 여성해방문학을 살펴보면, 여성의 글쓰기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주체의 복합성에 대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성을 중심으로 다시보기 해 보면 젠더, 민족, 민중이 교차하는 여성의 삶에서 각 시기마다 도미넌트가 되는 요소는 다름지언정 시대와 교감하면서 주체의 교차성을 고민해왔던 여성 글쓰기의 역사적 흐름이 발견된다. 이런 글쓰기 주체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문학이 민족문학의 단일성 주체에 대한 과잉된 상상력에 균열을 내는 대안적 존재로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여성편집위원회 편, 『여성』1호, 한국여성연구소, 창작과비평사, 1985.

윤정모, 『고삐1』, 풀빛, 1988.

## 단행본

-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40-363쪽.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7-50쪽.
- 이남희, 유리·이경희 옮김, 『민중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23-33쪽.
- 일레인 김·최정무,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13-21쪽.
-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116-117쪽.
- 한국여성연구회문학분과편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3-15쪽.

## 논문

-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문화』 4권1호,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11, 167-203쪽.
-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154-181쪽.
- 김영혜,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1990.봄, 48-74쪽.
-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15-49쪽.
- 김정은, 「‘광장에 선 여성’과 말할 권리: 1980년대 고정희의 글쓰기에 나타난 젠더와 정치」, 『여성문학연구』 4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67-313쪽.
- 김정자·정미숙, 「몸과 기억의 현상화-윤정모의 『고삐』읽기」, 『여성학연구』 10권 1호, 부산대여성연구소, 2000, 149-16쪽.
- 손유경, 「사후의 리얼리즘」, 『민족문학사연구』 5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35-61쪽.
-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또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365-404쪽.
-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하나의 문화』, 『여성』

- 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 이소희, 「탈식민 페미니즘비평과 페미니스트 입장이론의 교차 지점에 관한 연구-글로벌 시대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 『영어영문학』 제48권 3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2, 891-715쪽.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09-454쪽.
- 홍지혜, 「1980년대 여성학·여성운동계 출판물과 여성지의 교착:주부와 ‘가정교양」, 『여성동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78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22, 47-83쪽.

### Abstract

1980s women's liberation literature-intersection of gender, ethnicity and class

Lee, Sun-ok

In this paper,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from the 1980s was reviewed. While agreeing to a certain extent with the criticism that it contributed to the lower hierarchy of women by being overwhelmed by the grand narrative of nation and people,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a need to reevaluate the meaning of the women's literature that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of this period considered and practiced. In this paper, first, how to read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that considered women's literature in relation to national literature in the 1980s;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complex concepts of gender, ethnicity, and people discussed in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theory at the time; third, Targeting 『Gopi 1』, which was considered both a national literature and a women's literature, we analyzed how the complexity of the female subject was achieved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female people. I attempted to analyze their discussions and works focusing on the concept of Min-Jung(means the people), which was established as an alternative subject to the nationalist movement at the time. Their attempt is meaningful in that they attempted to create a crack in the concept of Min-Jung, which was composed of a single, male-centered subject after the end of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enthusiasm of the movement, and to portray the female Min-Jung. In that it considers the complexities of gender, ethnicity, and people, it is based on feminist perspective theory that opposes that one category is privileged as



an isolated category. This period also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e later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rsectionality. However, although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claims to be literature that maintains the perspective of female workers, it appears to have been insufficient in its significance as an alternative discourse that can dismantle the entire male-centricity of national literature by using a strategy of inscribing women into the concept of Min-jung. Although I agree with the declarative proposition that the perspectives of the three categories must be thought of in a complex manner, awareness of how specific intersectionality is achieved still remains a task.

Key words: Women's literature, 1980s,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nationalism, Min-jung, intersectionality

논문제출 / 2023. 11. 09.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7.